

재발성 위장관 간질성 종양 환자에서 Imatinib mesylate에 의해 발생한 간질성 폐질환 1예

전북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 내과학교실 종양 혈액 내과

*장지원, 임호영, 이나리, 송은기, 박재용, 임창열

Introduction : Imatinib mesylate (IM)는 tyrosin kinase inhibitor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, 위장관 간질성 종양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. IM은 복용 순응도가 좋고 비혈액학적 부작용의 빈도가 낮으나 0.01% 정도에서 간질성 폐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**Case presentation :** 41세 여자 환자로 2004년 4월 직장-질 증격에서 발생한 위장관 간질성 종양을 진단 받고 경질종양절제술을 시행 받았다. 수술 당시 병리 소견상 종괴는 6.5×5.5×3 cm이었고, mitotic count (8/50 HPF)로 고위험군이었으며, 수술 후 보조요법은 시행하지 않았다. 추적 검사상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아 경과 관찰 중 2010년 4월 시행한 골반 자기공명영상촬영상 직장-질 증격에서 위장관 간질성 종양의 재발이 확인되어 종양 절제술 후 IM 400 mg을 시작하였다. 복용 9개월에 종양 반응평가를 위해 시행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상 좌상엽의 과거 폐결핵 병변 외에 양측 폐하엽 및 늑막하 부위에 간유리음영 및 불규칙한 선상음영이 관찰되었다. 호산구성 폐렴과 혈행성 폐전이의 감별을 위해 흉강경하 생검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. 조직검사상 림프구 증식 및 조직구 응집이 관찰되는 비특이성 만성 염증 소견으로 간질성 폐질환에 합당하였으며, IM과의 임상적인 관련성으로 IM 연관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하였다. 약물 투여 중단 후 경과관찰 하였으며, 중단 1개월째 시행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상 이전 병변의 소실을 확인하였다. 현재 환자는 IM 복용 중단 상태로 병변의 진행은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, 추적검사상 병변의 진행시 IM 재복용을 계획 중이다. **Discussion :** 간질성 폐질환의 경우 호흡 곤란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평균 생존율 4년, 5년 생존율 20-40% 로 불량한 예후를 갖는다. IM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, 위장관 간질성 종양 등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. IM 사용에 따른 간질성 폐질환은 발생 빈도는 낮으나 무증상인 경우 간과 될 수 있다. 이러한 간질성 폐질환은 과거 폐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본 레에서도 과거 폐결핵의 기왕력이 있었고, 우리나라가 결핵 호발지역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다. 따라서, IM을 복용하는 환자, 특히 과거 폐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정기적인 흉부 방사선검사가 필요하며, 발생시 적절한 시기에 IM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. **Conclusion :** 저자들은 재발성 위장관 간질성 종양 환자에서 IM 복용중 발생한 약물 연관성 간질성 폐질환을 조직학적 확인을 하였으며, 약물의 중단을 통해 호전된 예를 경험 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.